

공적 자의식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자기개념 명확성의 이중매개효과*

하 서 연

전주대학교 상담심리학과 / 학생

하 정†

전주대학교 상담심리학과 / 교수

본 연구는 공적 자의식,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자기개념 명확성, 대인불안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대학생의 공적 자의식과 대인불안의 관계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자기개념 명확성이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대학교에 재학 중인 만 19~29세 남녀 대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구글 설문지를 통해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자료분석은 SPSS 25.0과 AMOS 21.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관분석 결과 공적 자의식,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자기개념 명확성, 대인불안은 모두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둘째, 공적 자의식과 대인불안의 관계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자기개념 명확성이 순차적으로 이중매개를 하였다. 이를 통해 공적 자의식이 높을수록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높아지고, 높아진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자기개념 명확성을 낮춰 대인불안을 증가시킴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공적 자의식과 대인불안의 관계에 대해 이해를 확장하였으며, 대학생의 대인불안을 낮출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공적 자의식, 대인불안,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자기개념 명확성

* 본 연구는 하서연(2021)의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대학생의 공적 자의식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자기개념 명확성의 이중매개효과’ 중 일부를 발췌, 수정한 내용임.

† 교신저자 : 하 정, 전주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Tel : 063-220-2921, E-mail : hajung68@jj.ac.kr

사회적 상황에서 사람들은 의사소통하며 자신을 향하는 다양한 표정들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을 주고받는다. 이때, 타인의 표정에 드러난 의도와는 다르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각자의 해석을 통해 자신의 정서, 생각, 행동 등에 반영한다. 이를테면, 자신에게 향하는 표정을 호의적 표현으로 해석하고, 이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경우에는 타인에게 자신의 좋은 면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보인다. 이는 타인에게 자신의 긍정적인 인상을 주고, 호감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이다. 반면에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나 비난이라고 인식하여 불편한 대인관계적 상황에 노출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두려움, 불안 등 부정적 정서에 휩싸일 수도 있다. 이처럼 대인관계적 상황에서 상대방의 평가가 실제로 인식 또는 상상, 예상될 경우에 사람들은 대인불안(Interpersonal Anxiety)을 경험하게 된다(Leary, & Kowalski, 1995). 대인불안은 사회불안의 하위요인 중 하나로 낮은 사람들에게 노출되거나 타인에 의해 당혹감을 느낄 수 있는 사회적 상황에서 지속적인 두려움을 느끼고, 그러한 상황에서 창피하거나 당혹스러운 행동을 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을 말한다(APA, 2013). 불안을 발생시키는 대상을 기준으로 사회불안을 수행 상황에서 경험하는 수행불안과 대인 상황에서 경험하는 대인불안으로 구분하고 있다(송은영, 하은혜, 2008; 오경자, 양윤란, 2003).

특히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단계에 따른 대학생 시기는 의미 있는 대인관계를 통해 친밀감을 형성하는 단계이다. 다양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대학생에게 이러한 대인불안은 주요한 심리적 현상이다.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불편감이 지속적으로 자주 나타나게 되면 대인불안으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대인불안

은 대학생의 대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강수진, 최영희, 2011; 정경숙, 오은주, 2017). 실제로 Strahan(2003)은 대학생 22%가 사회불안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특히 사회적 관계와 대인관계가 확대되는 시기로 대인불안을 포함하는 사회불안은 사회에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기회를 상실하게 하여 개인의 성공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신혜린, 이기학, 2008). 또한, 2017년 10월 한국일보에서 실시한 ‘대학생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를 살펴보기 위한 조사에서 친구, 조교, 교수, 선후배 등의 관계에서의 불안이 1위를 차지하였다(한국일보, 2017). 이런 점을 보아 대학생의 대인불안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을 제기한다.

최근 대인불안과 관련한 국내 연구는 개인과 관련된 정서, 행동, 인지, 환경과 같은 다양한 방면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대인불안을 높이는 인지적 요인으로는 자의식이 있다. 자의식의 하위요인 중 공적 자의식은 타인에게 드러나는 사회적 객체로서의 자기로, 자신의 외모, 행동방식 등 타인에게 드러나는 자기표현과 관련된 측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성을 의미한다(Fenigstein, Scheier, & Buss, 1975). 이는 대인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인지적 변인으로 확인되었으며(김환, 2015; 이강아, 홍혜영, 2013; Higa, C. K., Philips, L. K., Chorpita, B. F., & Daleiden, E. L., 2008; Takishima-Lacasa, J. Y., Higa-McMillan, C. K., Ebesutani, C., Smith, R. L., & Chorpita, B. F., 2014), 실제로 공적 자의식이 높아지면 자신의 인상관리에 빈번히 주의를 기울이고, 긍정적인 인상관리에 실패할 때 대인불안 수준을 상승시킨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선행연구들이 있다(곽지현, 홍혜영, 2018; 유승령, 김은하, 2019;

이강아, 홍혜영, 2013; 정현희, 정미정, 2002; Buss, 1980). 이러한 결과에 따라 공적 자의식이 높을수록 공적인 상황에서 타인의 거부적 반응에 민감하고, 주변을 살펴 얻은 사회적 단서를 이용해 자신의 사회적 행동을 결정하며(Fenigstein, 1979; Fenigstein et al., 1975), 외적 요구나 부분적으로 내재화된 의무에 의해 행동을 시작하는 통제 지향성을 특징적으로 보여준다(Deci & Ryan, 1985). 최근 공적 자의식과 대인불안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자기효능감(성현주, 2011), 평가에 대한 두려움(성현주, 2011; 이강아, 홍혜영, 2013), 열등감(김효정, 양난미, 2014) 등이 연구되고 있다.

한편, 대인불안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 중에서 인지 이론은 과거부터 이를 설명하는 주된 이론으로 제기되고 있다(남유진, 이봉건, 2020; 오지은, 임성문, 추상엽, 2011; Flett, Hewitt & De Rosa, 1996; Frost, Marten, Lahart & Rosenblate, 1990; Sorotzkin, 1985). 특히 사회적 상황에서의 불안은 자신이 기대하는 모습처럼 타인에게 비치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실제 자신의 능력에 의심을 가질 때 생겨난다고 본다(Clark & Wells, 1995; Leary & Kowalski, 1995). 이와 같이 단순히 타인에게 자신의 모습을 완벽하게 보이고자 하는 극단적인 성향을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라고 정의한다(Hewitt et al., 2003). 이동귀와 서해나(2010)의 대학생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 연구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높은 대학생은 자신의 전반적인 인상에 지나친 신경을 쓰며, 유능한 자신을 드러내 보이려 한다. 또, 타인에게 자신의 부족함이 알려지는 상황을 은폐하거나 회피하려 한다고 하였다. 즉, 수행의 완벽함보다 완벽한 자기상이 타인에게 보여지기 바라기 때문에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특징인 대인불안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선행연구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대인불안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김도희, 2019; 김효진, 2017).

이러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공적 자의식과도 높은 관련이 있다. 높은 공적 자의식은 사회적 객체로서의 자신의 인상과 표현적 행동에 대한 자기제시적 동기를 증가시키고, 과도하게 주의를 기울이려는 경향을 유발한다(이상구, 2004; Cheek & Buss, 1981).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공적 자의식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었다(김미령, 2011; 우인희, 2016).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대인불안과도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낸다(김남재, 2004; 류아영, 유순화, 윤경미, 2014; 조종빈, 2015). 타인에게 보여지는 자기에 대한 예민한 인식은 타인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주어야 한다는 걱정과 타인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높이고 이로 인해 대인불안 수준을 상승시킨다(이강아, 홍혜영, 2013; Schlenker & Leary, 1982). 반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대인불안간에 직접적인 경로가 나타나지 않은 선행연구결과도 있다(이나희, 이동귀, 2020; 이창아, 2018; 최호경, 신경민, 2020). 이러한 선행 연구결과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대인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타인의 기준에 맞춰 완벽함을 추구하게 되는 평가 상황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보다 영향력이 강한 다른 매개변인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다. 한편 다수의 연구 중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지지되고 있으며,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대인관계에 취약하다는 연구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김남재, 2004; 류아영 등, 2014; 조종빈, 2015; Mahone, Bruch, & Heimberg, 1993).

이러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자기개념 명확성과도 관련성이 높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높은 사람은 타인에게 자신을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내지만, 내부에는 사람이 보편적으로 가질 수 있는 부정적 정서, 불안 전함, 낙담 등을 감추고 쌓아두게 된다(이새씩, 2016). 동시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높은 사람은 타인에게 완벽하게 지각될 모습만 자기의 일부로 인정하고 있음으로써 그 대로의 자기를 수용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로 인해 일관적이지 못하고, 명확하지 못한 자기개념을 지닐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들은 완벽하게 자신을 제시하는 데 방해가 되는 정서를 억제하고 왜곡하기 때문에(백수현, 이영순, 2013), 자신의 내적인 정서 상태를 명확하게 알지 못해 정서적인 자기상에 혼란을 겪으며 자기개념 명확성이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부정적 경험들은 숨기고 자신의 완벽한 인상을 제시하고자 하며, 사회적 인정을 추구하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안정적인 자기개념의 통합을 방해함으로써 자기개념 명확성을 낮출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자기개념은 가치 역할, 개인적 목표, 특정 속성 또는 신념, 자존감을 의미하며 자기 지식적, 평가적 요소로 세분화된다(Sarial-Abi, Canli, Kunkale, & Yoon, 2016). 자기개념 명확성이란 자기개념의 구조적 측면으로서 자기개념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고 분명하게 정의되어 있으며, 내적으로 일관성이 있고, 시간적으로 안정된 정도를 의미한다(Campbell, Assanand, & Paula, 2003). Stopa(2009)의 연구에 따라 자기는 '과정(process)', '구조(structure)', '내용(contents)'으로 구분되는 등 다양한 하위 개념을 포괄하

고 있다. 그중 자기의 구조적 측면은 대인 불안을 이해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Stopa, Brown, Luke, & Hirsch, 2010). 기존 연구에서 사회불안장애 진단 요건을 충족한 사람들은 통제집단보다 자기개념이 덜 명확하고 불안정하였으며, 자기언행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여 상황을 부정적으로 자기귀인하며 긍정적인 해석에 어려움을 겪었다(Wilson & Rapee, 2006). 또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외로움간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의 완충적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희정, 2019). 특히 자기개념 명확성이 대인불안의 발생과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주목받고 있다(김송연, 2017; 백소영, 2016; 손효진, 2016; 옥주희, 2013; 차지연,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개념 명확성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대인불안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자기개념 명확성은 공적 자의식과도 관련이 있다. Scheier(1980)의 연구는 높은 공적 자의식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자신의 반대 의견을 나타내는 사람과 직면할 때, 덜 극단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거나 철회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김남희(2011)는 공적 자의식이 높으면 타인에게 보이는 자신의 인상을 긍정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억압함으로써 부정적 정서가 증가되고 나아가 심리적 부적응의 문제와 연결될 것이라는 제언점을 밝혔다. 부정적 정서는 정서적인 자기상에 혼란을 가져와 자기개념 명확성을 낮출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이새씩, 2016).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높은 공적 자의식은 낮은 자기개념 명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즉, 공적 자의식이 자기개념 명확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관련성은 대인불안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Scheier와 Carver (1985)는 공적 자의식이 높으면 대인불안과 결부되어 설명되기 때문에 공적 자의식이 대인불안의 선행변수로서 역할을 하지만, 공적 자의식이 반드시 대인불안을 일으키는 요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또한, 김미령(2011)은 공적 자의식의 파생적인 병증으로서 대인불안이 야기될 수는 있지만, 공적 자의식 자체가 대인불안을 자동적으로 이끄는 요인은 아니기에 높은 공적 자의식이 대인불안 유발의 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높은 공적 자의식은 사회적 객체로서의 자아에 대하여 환기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이렇듯 공적 자의식이 대인불안의 필수적인 선행변수는 아니더라도, 대인불안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결과들이 보고되었으며(김세영, 2008; 이강아, 홍혜영, 2013; Brunch, Hamer, Heimberg, 1995; Buss, 1980; Clark & Wells, 1995; Hope & Heimberg, 1988; Nilly & Jennifer, 2002; Woody, Chambless, & Glass, 1997), 공적 자의식이 대인불안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다.

이와 같이 상이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대인불안간에 직접적인 경로가 나타나지 않은 선행연구결과도 있으므로(이나희, 이동귀, 2020; 이창아, 2018; 최호경, 신경민; 2020), 공적 자의식과 대인불안간 관계를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자기개념 명확성이 순차적 매개하는 모형과 공적 자의식과 대인불안간 관계를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매개하면서 동시에 자기개념명확성이 매개하는 모형을 비교해볼 필요가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공적 자의식이 대인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앞서 살펴본 완벽주

의적 자기제시와 자기개념 명확성의 역할을 함께 고려하고자 한다. 자기 초점화 주의를 촉발하는 공적 자의식과 대인불안은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며, 공적 자의식이 높은 사람은 사회적 상황에서 적절하게 제시하고 싶어하는 만큼, 완벽한 자신의 모습만을 드러내고자 하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의 높은 연관성을 보여준다. Carver와 Scheier(1981)는 자기초점 주의 상태에서 자기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 이것이 대인불안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또한, 자기개념 명확성이 높은 사람은 자기와 관련된 부정적 정보에 덜 몰입되고 사회적 상황에서 자아에 대한 위협을 적게 느낀다(Campbell, 1990; Campbell et al., 1996). 공적 자의식이 높은 사람은 타인의 반응, 특히 완벽주의적 성향이 높으면 자기개념 형성을 방해할 수 있다(이새씩, 2016). 이로 인해 외부의 평가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됨으로써 높은 대인불안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대인불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을 순차적으로 거쳐 대인불안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공적 자의식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에 있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자기개념 명확성의 순차적 이중매개 작용에 초점을 맞춰 그 관계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공적 자의식과 대인불안의 관계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자기개념 명확성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 결과는 공적 자의식이 높아 대인불안을 경험하는 대학생들을 위한 상담 개입 방법을 모색하는 데에 의

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 자의식,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자기개념 명확성, 대인불안은 상관계가 있을 것이다. 둘째, 공적 자의식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자기개념 명확성이 순차적으로 이중매개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모형은 공적 자의식과 대인불안간 관계를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자기개

념 명확성이 순차적 매개하는 모형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공적 자의식과 대인불안의 관계를 자기개념 명확성이 부분매개하는 모형으로 설정하였다. 경쟁모형은 독립변인인 공적 자의식과 종속변인인 대인불안 사이를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자기개념 명확성이 부분매개하는 모형이다. 경쟁모형은 모든 변인 간의 관계가 가정된 모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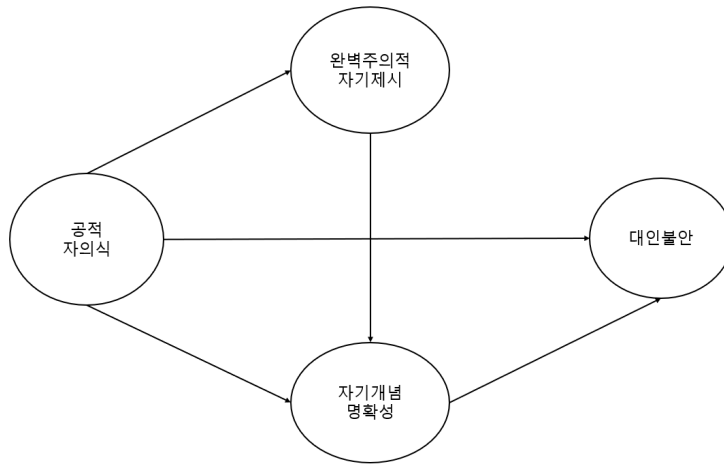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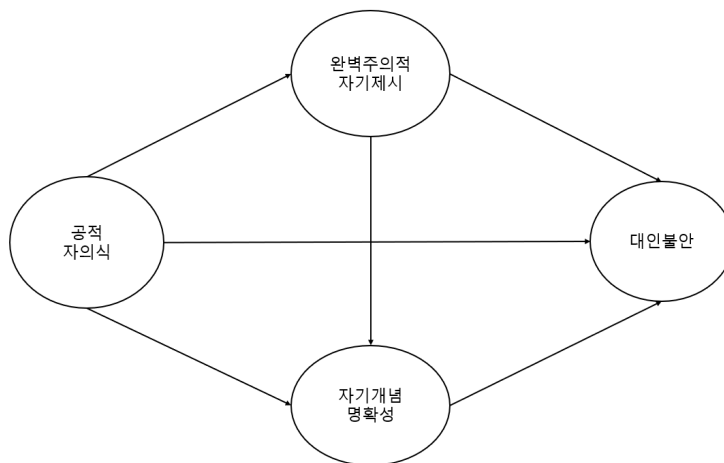


그림 2. 경쟁모형

방 법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전국 대학교에 재학 중인 만 19~29세 남녀 대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였다. 코로나19 발생 및 확산으로 인하여 대면 설문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측정 도구들을 구글 설문지를 통해 재구성하여 온라인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이를 대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전국 대학생 커뮤니티(에브리타임), SNS(네이버카페, 다음카페)에 온라인 설문 URI를 전달하였으며, 윤리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비밀보장의 원칙을 안내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수집 결과 총 400개의 설문을 수집하였으며, 특정 번호에만 몰아서 체크했거나 결측치가 있는 등 응답이 불성실하게 보여지는 39부를 제외하고, 총 361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 총 361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 최종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만 19~29세 대학생 361명으로, 성별은 남성이 99명(27.4%), 여성이 262명(72.6%)이었고, 나이는 만 19세부터 29세까지 분포되어 있었다. 학년의 경우 1학년 69명(19.1%), 2학년 89명(24.7%), 3학년 84명(23.3%), 4학년 98명(27.1%), 5학년 이상 21명(5.8%)이었다. 연구참여자의 전공계열은 인문계열 84명(23.3%), 자연계열 34명(9.4%), 예체능계열 28명(7.8%), 사회과학계열 70명(19.4%), 공학계열 45명(12.5%), 의료계열 42명(11.6%), 경상계열 42명(11.6%), 기타 16명(4.4%)이었다.

측정 도구

공적 자의식 척도(Self-Consciousness Scale; SCS)

대학생의 공적 자의식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Fenigstein et al.(1975)의 원척도를 Scheier와 Carver(1985)가 개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2문항의 자의식 척도(SCS)를 정승아, 오경자(2005)가 수정 및 번안한 것으로 사용하였다. 그 중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지는 자신의 행동, 외모, 태도 수행과 같은 자신의 외적 측면을 어느 정도 의식하며, 신경을 쓰는지를 나타내는 공적 자의식(Public Self-Consciousness)을 측정하는 하위 척도만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한다. 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는 나 자신을 나타내는 방식에 대해 신경 쓰고 있다.'와 같은 문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타인에게 인식되고 평가받을 수 있는 자신의 외적 측면에 주의를 집중할 경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승아, 오경자(2005)의 연구에서 공적 자의식 하위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5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71으로 나타났다.

대인불안 척도(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 SIAS)

대학생의 대인간 상호작용 과정에서 겪는 불안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Mattick과 Clarke(1998)가 개발한 원척도를 김향숙(2001)이 번안 및 타당화한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척도(SIAS)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요구하는 상황 속에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반응의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부

터 매우 그렇다(5점) 까지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한다.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할 때 불편하다.’ 등의 문항을 포함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상황에서 불안을 많이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김향숙(2001)의 연구에서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척도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2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90으로 나타났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Perfectionistic Self Presentation Scale-K; PSPS-K)

대학생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를 측정하기 위해 Hewitt 등(2003)이 개발한 척도를 하정희(2011)가 한국 실정에 맞게 문항 추가를 비롯한 재구성 및 타당화 작업을 한 한국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PSPS-K)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7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7점)로 평정한다.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완벽주의적 자기노력(PSP)’(예: 나는 늘 완벽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한다.) 8문항, ‘불완전함 은폐-행동적(NDP)’(예: 다른 사람들에게 내 문제들을 말하기 보다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5문항, ‘불완전함 은폐-언어적(NDC)’(예: 내 단점을 되도록 말하지 않으려고 한다.) 6문항인 총 3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정희(2011)의 연구에서 전체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5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들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완벽주의적 자기노력 .88, 불완전함 은폐-행동적 .75, 불완전함 은폐-언어적 .75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2이고, 하위요인들은 완벽주

의적 자기노력 .84, 불완전함 은폐-행동적 .77, 불완전함 은폐-언어적 .67으로 나타났다.

자기개념 명확성 척도(Self-Concept Clarity Scale; SCCS)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분명하게 알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Cambell 등(1996)이 개발한 자기개념 명확성 척도(SCCS)를 김대익(1998)이 요인 분석 후 번안 및 단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로 평정하며, ‘내 자신에 대한 나의 생각들이 불일치 할 때가 있다’와 같은 문항을 포함한다.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개념이 분명하지 않고, 자신에 대해 일관적이지 못하고 불안정함을 의미한다. Cambell 등(1996)의 연구에서 전체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6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전체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79으로 나타났다.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공격 자의식과 대인불안의 관계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자기개념 명확성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SPSS 25.0과 AMOS 21.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 위해서 내적 일관성 검증(Cronbach's α)을 하였으며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왜도와 첨도를 통해 다변량 정규성을 확인하였다.

셋째, SPSS 25.0을 사용해 개념 간의 균형 (Item-to-construct balance)을 활용한 기법을 채택하였다. 이를 위해 최대우도법을 활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FA)을 실시하고 문항묶음을 구성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여 문항묶음은 가장 높은 요인부하량을 보이는 문항부터 순차적으로 측정변수에 할당하여 오차를 묶음 간에 균등하게 나누었다. 넷째, 문항묶음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을 순차적으로 검증하여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한 후 최종모형을 선정하였다. 여섯째,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고, 팬텀변수를 사용하여 간접 경로들의 개별매개효과 및 이중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 과

상관관계 및 평균과 표준편차

본 연구에서의 연구 문제를 검증하기 위한 기초분석으로서 주요변인 간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와 Pearson 상관분석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자료의 정규성을 가정하기 위해서는 좌우대칭을 벗어난 정도를 나타내는 왜도가 2보다 작고, 분포의 뾰족한 정도를 나타내는 첨도가 7을 넘지 않아야 한다(West, Finch, & Curran, 1995). 본 연구는 왜도 값이 -.52~.19로 2보다 작고, 첨도 값은 -.24~.89로 7을 넘지 않아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정규성 가정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의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변인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두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분석 결과 공적 자의식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r=.44, p<.001$), 대인불안($r=.31, p<.0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자기개념 명확성($r=-.23, p<.001$)과 유의

표 1. 주요변인 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및 상관계수

	공적 자의식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자기개념 명확성	대인불안
공적 자의식	1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44***	1		
자기개념 명확성	-.23***	-.26***	1	
대인불안	.31***	.31***	-.53***	1
M	3.74	4.76	2.97	3.09
SD	0.64	0.76	0.68	0.75
왜도	-.52	-.26	.19	-.27
첨도	.41	.89	-.24	-.05

주. *** $p<.001$

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자기개념 명확성($r=-.26, p<.0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대인불안($r=.31, p<.001$)와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자기개념 명확성은 대인불안($r=-.53, p<.001$)와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측정모형 검증

구조모형 검증을 실시하기 전 각 변수의 척도별로 탐색적 요인분석(EFA)과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항묶음을 만들었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문항묶음은 측정지표가 많은 항목으로 구성된 경우, 구성개념 별로 둘이나 셋 등으로 항목을 묶어 새롭게 통합하여 이용하는 것인데(조현철, 강석후, 2007), 본 연구에서는 Little, Cunningham, Shahar, & Widaman(2002)이 제시한 항목묶음 기법 중에

서 항목과 구성개념 간의 균형(Item-to-construct balance)을 활용한 기법을 이용하였다.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은 표 2과 같다.

문항묶음으로 구성된 측정변수들의 상관, 평균,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는 공적 자의식,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자기개념 명확성, 대인불안의 각 측정변수는 모두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r=-.48 \sim .81, p<.05 \sim .001$).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비교

공적 자의식과 대인불안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검증하여 비교하였다. 두 모형의 모형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CFI, TLI, RMSEA를 살펴보았다. CFI와 TLI는 .90 이상이면 모형 적합도가 좋은 것을 의미하고(홍세희, 2000), RMSEA는 .05보다 작으면 좋은 적합도, .08보다 작으면 괜찮은 적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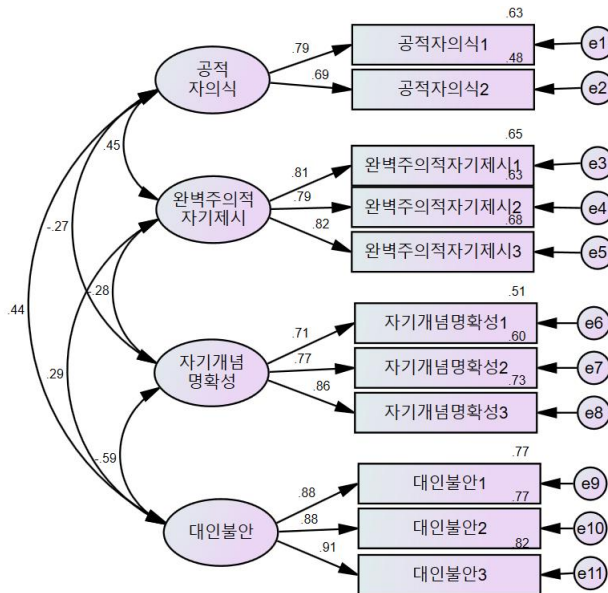


그림 3. 측정모형의 분석결과

표 2.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잠재변수	측정변수	B	β	S.E	Z
공적 자의식	공적 자의식1	1.00	.79		-
	공적 자의식2	0.69	.69	0.09	7.67***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1	1.00	.81		-
	완벽주의적 자기제시2	0.76	.79	0.05	14.91***
	완벽주의적 자기제시3	0.75	.82	0.05	15.26***
자기개념 명확성	자기개념 명확성1	1.00	.71		-
	자기개념 명확성2	1.20	.77	0.09	13.00***
	자기개념 명확성3	1.31	.86	0.10	13.58***
대인불안	대인불안1	1.00	.88		-
	대인불안2	1.05	.88	0.05	22.50***
	대인불안3	1.05	.91	0.04	23.74***

주. *** $p < .001$

도, .10이하면 보통 적합도, .10보다 크면 나쁜 적합도로 판단한다(Browne & Cudeck, 1992).

모형검증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먼저, 연구모형의 $\chi^2=69.265(df=39)$ 이고, CFI=.985, TLI=.979으로 좋은 적합도 지수를 나타내고, SRMR=.038, RMSEA=.046로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모형도 $\chi^2=69.166(df=38)$ 이고, CFI=.984, TLI=.977으로 좋은 적합도 지수를 나타내고, SRMR=.038, RMSEA=.048로 좋은 적합도를 나타냈다. 모형의 적합도가 유사하게 좋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은 내포관계에 있어 χ^2 차이를 통해 직접적

으로 비교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우수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χ^2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살펴보면 이들의 χ^2 차이는 자유도(df)차이가 1인 상태에서 유의확률 .05수준의 χ^2 임계치 3.84보다 작은 값을 나타내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Delta\chi^2(1)=0.099, p>.05$). 두 모형 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을 때는 간결성의 원칙에 따라 자유도가 더 큰 모형인 조금 더 간단한 모형이 선호된다. 따라서 간결성의 원칙에 따라 연구모형을 본 연구의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표 3. 모형검증 결과

	χ^2	df	CFI	TLI	SRMR	RMSEA
연구모형	69.265	39	.985	.979	.038	.046
경쟁모형	69.166	38	.984	.977	.038	.048

구조모형 검증

CFI와 TLI는 .90 이상이면 모형 적합도가 좋은 것을 의미하고(홍세희, 2000), RMSEA는 .05보다 작으면 좋은 적합도, .08보다 작으면 괜찮은 적합도, .10이하면 보통 적합도, .10보다 크면 나쁜 적합도로 판단한다(Browne & Cudeck, 1992). 공적 자의식,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자

기개념 명확성, 대인불안의 관계를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난 최종모형의 경로계수를 표 4와 그림 4에 제시하였다. 최종모형의 적합도는 $\chi^2=69.265(df=39, N=361)$, CFI=.985, TLI=.979, SRMR=.038, RMSEA=.046으로 나타났다.

표 5를 살펴보면, 모든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공적 자의식은

표 4.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B	β	S.E	Z
공적 자의식 →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98	.45	.16	6.18***
공적 자의식 → 자기개념 명확성	-.28	-.19	.12	-2.38*
공적 자의식 → 대인불안	.43	.30	.09	4.97***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 자기개념 명확성	-.14	-.20	.05	-2.79*
자기개념 명확성 → 대인불안	-.48	-.51	.05	-8.80***

주. * $p < .05$,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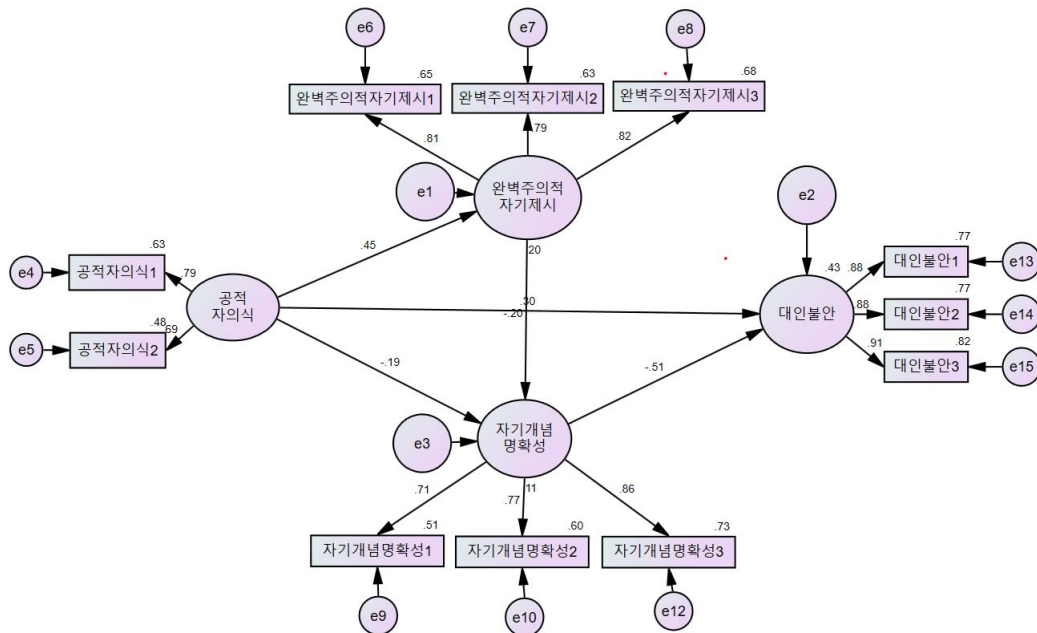


그림 4. 최종모형의 분석결과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대인불안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는 공적 자의식이 높을수록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대인불안이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공적 자의식은 자기개념 명확성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는 공적 자의식이 높을수록 자기개념 명확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자기개념 명확성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높을수록 자기개념 명확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자기개념 명확성은 대인불안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자기개념 명확성이 높을수록 대인불안이 낮음을 의미한다.

간접효과 검증

본 연구의 구조모형에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Shrout와 Bolger(2002)가 제안한 부트스트랩 절차를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원자료에서 무선할당으로 형성된 10,000개의 표본을 생성하여 간접효과를 추정하였고,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을 때 간접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대학생의 공적 자의식은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총 효과가 모두 유의하였다. 이는 공적 자의식이 대인불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자기개념 명확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중 대학생의 공적 자의식은 대인불안에 대해 자기개념 명확성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경우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간접효과 및 총효과가 유의하였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대인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는 자기개념 명확성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대인불안과의 관계를 완전매개함을 의미한다. 결국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자기개념 명확성을 매개로 하였을 경우에 한해 대인불안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팬텀변수 검증

다중매개모형에서 부트스트래핑 기법을 활

표 5. 변인들 간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 효과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Lower	Upper
공적 자의식 →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98***		.98***		
공적 자의식 → 자기개념 명확성	-.28*	-.14*	-.42*	-.347	-.003
공적 자의식 → 대인불안	.43***	.20***	.63***	.172	.425
완벽주의적자기제시 → 자기개념 명확성	-.14*		-.14*	-.369	-.034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 대인불안		.07*	.07*		
자기개념 명확성 → 대인불안	-.48***		-.48***		

주. * $p < .05$, *** $p < .001$

표 6. 개별 간접효과의 검증 결과

경로	Estimate	Lower	Upper
공적자의식 → 자기개념 명확성 → 대인불안	.05*	.002	.180
공적자의식 →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 자기개념 명확성 → 대인불안	.02*	.007	.102

주. * $p < .05$

용했을 때 각각의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매개변수의 매개효과를 파악하려면 팬텀변수를 만들어 진행해야 한다(김성은, 정규형, 허영희, 우중훈, 김과현, 2018). 본 연구의 공적 자의식과 대인불안 사이에는 이중매개 변수가 있으므로 개별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팬텀변수를 활용하였다(Chan, 2007).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검증 결과 공적 자의식과 대인불안의 관계에서 모든 개별 간접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공적 자의식과 대인불안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모형을 밝혀 대학생의 대인불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담현장에서 대인불안을 다루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공적 자의식과 대인불안 간 관계를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자기개념 명확성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연구모형과 공적 자의식과 대인불안 사이를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자기개념 명확성이 부분매개하는 경쟁모형을 설정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연구모형이 더 좋은 지수를 나타냈기 때문에 최종모형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공적 자의식이 대인불안을 유발할 때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자기개념 명확성이 순차적으

로 매개함을 의미한다. 최종적으로 이에 대한 주요 연구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 자의식,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자기개념 명확성, 대인불안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주요 변인들은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학생의 공적 자의식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대인불안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자기개념 명확성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공적 자의식과 대인불안이 정적 상관을 보인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곽지현, 홍혜영, 2018; 신현숙, 안의자, 강병은, 2016; 유승령, 김은하, 2019; Buss, 1980). 즉, 대인관계 상황에서 타인이 자신의 공적인 모습을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는지를 의식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자주, 또는 강하게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자기개념 명확성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고, 대인불안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대인불안과 정적 상관을 보인 선행연구(남유진, 이봉건, 2020; 박지혜, 2018; 배효숙, 2016; 안소연, 2016)와 일치한 결과이다. 자기개념 명확성은 대인불안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대인관계에 있어 자신의 자기개념이 계속하여 변하며 일관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자기개념 명확성이 낮은 사람은 사회적인 갈등 상황에서 더 위협을 느끼고, 이성적이거나 건설적으로 문제를 해결하

지 못하며(Nezlek & Plesko, 2001), 유의미하게 높은 대인불안을 경험한다고 확인되었다(Stopa et al., 2010).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적은 사람일수록 대인불안을 더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요약하면 공적 자의식이 높을수록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대인불안이 높은 반면, 자기개념 명확성은 낮아진다. 공적 자의식,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자기개념 명확성, 대인불안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수임을 의미하며 연구자의 첫 번째 연구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둘째, 공적 자의식과 대인불안 사이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자기개념 명확성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공적 자의식이 높을수록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은 높아지고, 높아진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자기개념 명확성을 낮춰 결국 대인불안을 증가시키게 된다. 즉, 높은 공적 자의식과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가져오는 낮은 자기개념 명확성은 대인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긍정적인 인상관리에 실패한 대학생의 대인불안 상승은 타인에게 잘 보이려는 높은 욕구로 인해 자신의 일관되지 않은 자기개념 명확성이 낮아져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연구모형을 채택함으로써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대인불안에 직접적 영향은 없었지만, 자기개념 명확성을 거쳐 간접적 영향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대인불안에 직접적인 경로를 나타내지 않은 선행연구(이나희, 이동귀, 2020; 이창아, 2018; 최호경, 신경민, 2020)와 일치한다. 또한 김미령(2011)은 공적 자의식이 대인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지만 대인불안의 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공적 자의식은 대인불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매개변수를 통해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Hope와 Heimberg(1988)는 임상적 사회공포증 집단에게 자의식 척도를 실시하고, 대인관계 모의상황에서 불안의 여러 가지 측정치들(사회적 회피 및 불안척도,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자기 진술, 상태불안 검사 등)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공적 자의식 점수는 피험자의 불안감을 나타내는 여러 측정치와 상관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관계는 대부분 자기보고 측정치로 구성된 경우에서 가장 잘 나타났다. 또한, Monfries와 Kafer(1994)의 연구에서도 공적 자의식은 사회불안의 여러 측정치와 정적으로 상관되었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지행동집단치료의 효과를 보고한 연구에서 공적 자의식은 대인불안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프로그램 실시 후 공적 자의식과 대인불안에서 유의미한 감소가 있음을 보고하였다(오자영, 2005).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대인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공적 자의식이 더 높음을 보여준다. 이는 지나친 자기 초점화 주의(self-focusedattention)가 타인에 대한 주의 집중량을 감소시켜 대인관계의 수행능력을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상호작용 효과를 감소시킨다고 보는 입장(Hartman, 1983)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공적 자의식이 높을수록 직접적으로 대인불안이 높아지기도 하며, 매개변인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높아져 자기개념 명확성이 낮아짐으로써 대인불안을 높이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Ingram, Smith과 Brehm(1983)은 여러 학자들의 주장을 바탕으로 대인

불안의 발생 원인을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사회기술의 부족으로 특정한 상황에 적절한 사회적 대처를 하지 못했을 때이다. 둘째, 대인관계 상황에서 중립자극이 혐오 자극과 연합되어 조건화되면서 대인불안이 나타난다. 셋째, 사회적 상호작용 결과에 대한 부정적인 자기 평가와 낮은 자존감으로 대인불안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본 연구의 실수에 대한 염려와 타인의 시선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높을수록, 자기개념이 일관되지 않게 영향을 미쳐서 대인불안에 이르게 하는 자기개념 명확성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자기개념 명확성 효과에 대해 단순한 매개효과 혹은 조절효과를 보던 관점을 확장하여, 본 연구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자기개념 명확성의 순차적 매개라는 환경-자기(타인-자기)와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모형검증을 통해 사회적 변인과 개인 변인이 어떤 맥락을 통해 영향을 주고받는지 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라는 변인을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자기개념 명확성이 낮은 사람은 사회적인 갈등 상황에서 더 위협을 느끼고, 이성적이거나 건설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Nezlek & Plesko, 2001), 유의미하게 높은 대인불안을 경험한다고 확인된 연구 결과가 있다(Stopa et al., 2010).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결과는 높은 공적 자의식과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로 인해 대인불안을 겪는 대학생에게 인지적 요소인 자기개념 명확성을 높여줄 수 있는 개입을 통해 대인불안을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한다. 높은 공적 자의식과 완벽주의적 자기제

시로 인해 대인불안을 겪는 대학생을 상담할 경우, 이들의 이면에 깔린 자기개념의 내용 및 구조를 탐색해야 한다. 그 후,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통합시킴으로써 안정적인 자기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문경하(2007)의 자기개념 명확성과 자의식이 주관적 안녕감과 타인의 평가에 따른 정서 반응을 연구한 결과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이 낮은 사람들이 높은 공적 자의식을 나타낼 때, 대인관계를 형성하거나 자신의 권리나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고, 타인과의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는 등의 적응적인 행동을 보이지 못하였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자기개념 검사를 통하여 대인불안을 경험하는 내담자의 자기상이나 사고를 탐색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대인불안을 경험하는 내담자의 인지적 원인을 파악하여, 이들의 인지적 재구조화를 통해 대인불안의 행동적 및 정서적 변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완벽하게 보이고자 하는 성향이 주는 이득과 보상으로 인해 변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에(권이정, 2010; Hewitt & Flett, 2002) 다수의 연구자들은 완벽주의를 치료하기 어렵다고 말한다(Blatt, Zuroff, Bondi, Sanislow III, & Plickonis, 1998).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쉽게 바뀌지 않는 성격적 특성에 개입하기보다 인지적 요소인 자기개념 명확성을 높여주는 개입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유득권, 이영호(2020)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불안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방어적 요소인 불완전함은폐노력-행동에 대한 개입이 중요하며, 은폐 성향이 있더라도 통합하된 방식으로 자기개념을 조직화할 수 있다면 사회불안을 덜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자신의

심리적 문제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식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높은 사람들이 더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자기인식을 유지할 수 있게 돕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공적 자의식이 높은 사람이 대인불안을 경험하는 데 있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자기개념 명확성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가 유의하다는 것을 밝힌 것에 의의가 있다. 실수에 대한 염려 및 타인의 시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높을수록, 자기개념 명확성에도 영향을 미쳐서 대인불안에 이르게 한다는 점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의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자기개념 명확성 효과에 대해 단순한 매개효과 혹은 조절효과를 보던 관점을 확장하여,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자기개념 명확성의 순차적 매개라는 환경-자기(타인-자기)와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펴 보았기에 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공적 자의식이 자기개념 명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확인한 결과는 대인불안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 상담할 때 어떤 개입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공적 자의식과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로 인해 대인불안을 겪는 대학생에게 인지적 요소인 자기개념 명확성을 높여줄 수 있는 개입을 통해 대인불안을 낮출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부정적인 자신에 대한 자아상을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과 동시에 그들의 자기개념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일관성 있는 신념을 가지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며, 상담자는 내담자 스스로를 객관적인 시선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을 낮추어 자신에 대한 불만족감이 적어질 수 있도록 돕는 작업이 매우 유용할 것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참가자의 성비가 불균형하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의 참가자 여성의 비율이 72.6%에 이르기 때문에 여자 대학생에 편향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표본의 성비를 균등하게 배분한 연구를 진행하여 표본의 대표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더불어 남녀차이를 살펴보는 것도 요청된다.

둘째,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자기보고식 측정도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연구대상자들이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공적 자의식과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높은 경우에 자신의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 솔직하게 응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공적 자의식과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높은 사람들의 특성을 통제된 환경의 실험을 통해 측정하는 방법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는 공적 자의식,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대인불안에 대한 단기간의 횡단적 자료에 의한 것이므로 각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모든 척도들이 신뢰도 및 타당도를 보장하고는 있으나 이 세 가지 변인에 대한 종단적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설명력 있는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으므로 추후 연구에서 다양한 모형 검증이 요청된다.

넷째, 공적 자의식은 타인에게 지각되는 사

회적인 대상으로서의 자기에 주목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자신의 모습이 타인에게 보여지는 것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발달단계인 청소년기와도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대학생뿐만 아니라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공적 자의식,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자기개념 명확성, 대인불안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한 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대학생의 대인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를 순차적으로 밝힌 데 그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김수진, 최영희 (2011). 성인애착이 대인관계 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 양식과 사회 불안을 매개변인으로. *인간발달연구*, 18(3), 53-68.
- 박지현, 홍혜영 (2018). 대학생의 공적 자의식이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불안과 대인관계문제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5(3), 33-62.
- 권이정 (2010). 대학생의 완벽주의와 우울 간의 관계: 마음챙김, 자기 비난의 매개효과. *경북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
- 김남재 (2004). 자기제시 동기와 대인간 평가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3), 677-695.
- 김남희 (2011). 자의식과 자기개념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학생생활연구*, 14, 67-78.
- 김대익 (1998). 한국인의 자아개념 명료성에 대한 연구: 성격, 자의식, 행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도희 (2019). 대학생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령 (2011). 공적 자의식과 대인 불안과의 관계에서 자아 정체성 성취의 매개 효과와 조절 효과. *상담학연구*, 12(2), 721-738.
- 김성은, 정규형, 허영희, 우종훈, 김과현 (2018). 한 번에 통과하는 논문: AMOS 구조방정식 활용과 SPSS 고급 분석. *한빛아카데미 (주)*.
- 김세영 (2008). 청소년의 완벽주의 성향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공적자의식의 중재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송연 (2017). 대학생의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와 수치심의 매개효과.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향숙 (2001). 사회공포증 하위유형의 기억 편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효정, 양난미 (2014). 대학생의 공적 자의식과 사회불안과의 관계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열등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4(1), 287-287.
- 김효진 (2017). 대학생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대인불안의 관계에서 자기불일치와 회피적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 환 (2015). 사회불안과 공적 자의식, 초점주의 역기능이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인지행동치료*, 15(3), 519-539.
- 남유진, 이봉건 (2020). 대학생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사회불안의 관계: 대처방식의 중재효과. *스트레스研究*, 28(1), 10-16.
- 류아영, 유순화, 윤경미 (2014).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매개

- 효과. *열린교육연구*, 22(3), 135-155.
- 문경하 (2007). 자기개념명확성과 자의식이 주관적 안녕감 및 평가반응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국일보(2017, 10, 21). 대학생 고민 1순위는 취업 '주변관계'를 더 걱정했다.
<http://www.hankookilbo.com/v/ec463b0f520845378c010471f5dbfac6> 에서 2020, 11, 27 자료 연음.
- 박지혜 (2018). 청소년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효숙 (2016).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소영 (2016). 자기자비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백수현, 이영순 (2013).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사회적 불안과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1), 385-400.
- 성현주 (2011). 자의식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기효능감 및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덕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효진 (2016). 성인의 내현적자기애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기개념명확성과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은영, 하은혜 (2008). 청소년의 외상경험, 완벽주의 성향 부정적 사고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인지행동치료*, 8(1), 41-56.
- 신현숙, 안의자, 강병은 (2016). 여고생의 공적 자의식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기본심리 욕구 충족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3(3), 497-519.
- 신혜린, 이기학 (2008). 성인애착과 성별에 따른 대학생 사회불안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7(1), 139-159.
- 안소연 (2016).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경자, 양윤란 (2003). 청소년기 사회불안의 발생과 유지의 심리적 기제 I: 행동억제 기질, 부모양육태도 및 외상경험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3), 557-576.
- 오자영 (2005). 인지행동집단치료가 사회공포증 경향이 있는 대학생들의 공적자의식 대인불안 및 부정적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감소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지은, 임성문, 추상엽 (2011). 완벽주의와 자기구실 만들기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1), 135-155.
- 옥주희 (2013). 부정적 자기개념과 자기개념명확성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부적응적 자기초점적 주의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인희 (2016). 공적 자의식과 자기구실 만들기의 관계: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실패공포의 매개효과.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득권, 이영호 (2020).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자기개념의 구조적 특징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9(1), 25-35.
- 유승령, 김은하 (2019).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기자비로 조절된 자의식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1(1), 243-261.
- 이강아, 홍혜영 (2013). 대학생의 공적 자의식

- 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4), 2271-2290.
- 이나희, 이동귀 (2020). 대학생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자기몰입 및 자기은폐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하위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3), 1347-1369.
- 이동귀, 서해나. (2010). 상담일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성향이 높은 대학생과 낮은 대학생의 특성비교. *상담학연구*, 11(1), 91-110.
- 이상구 (2004). 공적 자기의식과 스포츠참가 정도의 관계. *스포츠과학연구소논총*, 22, 69-79
- 이새짙 (2016). 대학생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우울의 관계: 자기개념 명확성과 외로움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창아 (2018). 대학생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기자비와 자기개념 명확성의 매개효과.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경숙, 오은주 (2017). 여대생의 대인불안과 대인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8(1), 475-482.
- 정승아, 오경자 (2005). 자기 불일치가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 자의식의 매개효과와 자기제기 동기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4), 887-901.
- 정현희, 정미정 (2002). 자의식, 자기개념, 비합리적 신념이 대학생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1), 39-53.
- 조중빈 (2015).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대인관계 불안의 관계에서 자기비난의 매개효과. 광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현철, 강석후 (2007). 구조방정식 모델에서 항목묶음이 인과 모수의 검정과 적합도 평가에 미치는 영향. *마케팅과학연구*, 17(3), 133-153.
- 차지연 (2015). 불안정 성인애착과 사회불안의 관계.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호경, 신경민 (2020).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사회불안의 관계: 불확실성에 대한 내인력 부족과 이분법적 사고의 이중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코칭*, 4(1), 1-19.
- 최희정. (2019).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절효과.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하정희 (2011). 한국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PSPS-K)의 개발과 타당화. *상담학연구*, 12(4), 1121-1140.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 American Psychiatric Pub.
- Blatt, S. J., Zuroff, D. C., Bondi, C. M., Sanislow III, C. A., & Pilkonis, P. A. (1998). When and how perfectionism impedes the brief treatment of depression: Further analyses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treatment of depression collaborative research program.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6(2), 423-428.
- Browne, M. W., & Cudeck, R. (1992).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1(2), 230-258.

- Brunch, M. A., Hamer, R. J., & Heimberg, R. G. (1995). Shyness and public self-consciousness: Addictive or interactive relation with social inte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63(1), 47-63.
- Buss, A. (1980). *Self-conscious and social anxiety*. 19-22. San Francisco: W. H. Freeman.
- Campbell, J. D. (1990). Self-esteem and clarity of the self-concep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3), 538-549.
- Campbell, J. D., Assanand, S., & Paula, A. D. (2003). The structure of the self concept and its relation to psychological adjustment. *Journal of Personality*, 71(1), 115-140.
- Campbell, J. D., Trapnell, P. D., Heine, S. J., Katz, I., Lavallee, L. F., & Lehman, D. R. (1996). Self-concept clarity: Measurement, personality correlates, and cultural boundar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1), 141-156
- Carver, C. S., & Scheier, M. F. (1981). The self-attention-induced feedback loop and social facilit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7(6), 545-568.
- Chan, W. (2007). Comparing indirect effects in SEM: A sequential model fitting method using covariance-equivalent specificati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4(2), 326-346
- Check, J. M., & Buss, A. H. (1981). Shyness and socia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2), 330-339.
- Clark, D. M., & Wells, A. (1995). A cognitive model of social phobia. *Social Phobia: Diagnosis, Assessment, and Treatment*, 41(68), 69-73.
- Deci, E. L., & Ryan, R. M. (1985). The general causality orientations scale: Self-determination in personalit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9(2), 109-134.
- Fenigstein, A., Scheier, M. F., & Buss, A. H. (1975). Public and private self-consciousness: Assessment and theor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3(4), 522-527.
- Fenigstein, A. (1979). Self-consciousness, self-attention and social inte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1), 75-86.
- Flett, G. L., Hewitt, P. L., & DeRosa, T. (1996). Dimensions of perfectionism, psychosocial adjustment, and social skill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0(2), 143-150.
- Frost, R. O., Marten, P. A., Lahart, C., & Rosenblate, R. (1990). The dimensions of perfectionism.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5), 449-468.
- Hartman, L. M. (1983). A metacognitive model of social anxiety: Implications for treatment. *Clinical Psychology Review*, 3(4), 435-456.
- Hewitt, P. L., Flett, G. L., Sherry, B. S., Habke, M., Parkin, M., Lam, R. W., McMurtry, B., Ediger, E., Fairlie, P., & Stein, M. B. (2003). The interpersonal expression of perfection: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6), 1303-1325.
- Higa, C. K., Philips, L. K., Chorpita, B. F., & Daleiden, E. L. (2008). The structure of self-consciousness in children and young adolescents and relations to social anxiety.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3(4), 261-271.
- Hope, D. A., & Heimberg, R. G. (1988). Public

- and private self-consciousness and social phobia.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4), 626-639.
- Ingram, R. E., Smith, T. W., & Brehm, S. S. (1983). Depression and information processing: Self-schemata and the encoding of self-referent info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2), 412-420.
- Leary, M. R., & Kowalski, R. M. (1995). The self-presentation model of social phobia. In R. G. Heimberg, M. R. Liebowitz, D. A. Hope & R. R. Schneier (Eds.), *Social phobia: Diagnosis, assessment and treatment* (pp. 94-112). New York: Guilford Press.
- Little, T., Cunningham, W., Shahar, G., & Widaman, K. (2002). To parcel or not to parcel: Exploring the question, weighing the merit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2), 151-173.
- Mahone, E. M., Bruch, M. A., & Heimberg, R. G. (1993). Focus of attention and social anxiety: The role of negative self-thoughts and perceived positive attributes of the other.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7(3), 209-224.
- Mattick, R. P., & Clarke, J. C. (199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measures of social phobia scrutiny fear and social interaction anxiet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6(4), 455-470.
- Monfries, M. M., & Kafer, N. F. (1994). Private self-consciousness and fear of negative evaluation. *Journal of Psychology*, 128(4), 447-454.
- Nilly, M., & Jeinnifer, W. (2002). Self-focused attention and nagative affect: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28(4), 638-662.
- Nezlek, J. B., & Plesko, R. M. (2001). Day-to-day relationships among self-concept clarity, self-esteem, daily events, and mood.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2), 201-211.
- Sarial-Abi, G., Canli, Z. G., Kumkale, T., & Yoon, Y. (2016). The effect of self-concept clarity on discretionary spending tendency.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in Marketing*, 33(3), 612-623.
- Scheier, M. F. (1980). Effects of public and private self-consciousness on the public expression personal belief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3), 514-521.
- Schlenker, B. R., & Leary, M. R. (1982). Social anxiety and self-presentation: A conceptualization and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92(3), 641-669.
- Scheier, M. F., & Carver, C. S. (1985). The self consciousness scale: A revised version for use with general populations 1.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5(8), 687-699.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Sorotzkin, B. (1985). The quest for perfection: Avoiding guilt or avoiding shame?.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22(3), 564-571.
- Stopa, L. (2009). Why is the self important in understanding and treating social phobia?. *Cognitive Behaviour Therapy*, 38(S1), 48-54.
- Stopa, L., Brown, M. A., Luke, M. A., & Hirsch, C. R. (2010). Constructing a self: The role of

- self-structure and self-certainty in social anxiet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8(10), 955-965.
- Strahan, E. Y. (2003). The effects of social anxiety and social skills on academic performanc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4(2), 347-366.
- Takishima-Lacasa, J. Y., Higa-McMillan, C. K., Ebesutani, C., Smith, R. L., & Chorpita, B. F. (2014). Self-consciousness and social anxiety in youth: The revised self-consciousness scales for children. *Psychological Assessment*, 26(4), 1292-1306.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 Problems and remedies. In R. Hoyle(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56-75). Newbury Park, CA: Sage.
- Wilson, J. K., & Rapee, R. M. (2006). Self-concept certainty in social phobia.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4(1), 113-136.
- Woody, S. R., Chambless, D. L., & Glass, C. R. (1997). Self-focused attention in the treatment of social phobia.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5(2), 117-129.
- 원 고 접 수 일 : 2021. 10. 06
수정원고접수일 : 2022. 02. 03
게 재 결 정 일 : 2022. 02. 22

The Influence of Public Self-Consciousness on Interpersonal Anxiety: The Double Mediating Effect of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Self-Concept Clarity

Seo yeon Ha

Jeonju University, Counseling Psychology
Student

Jung Ha

Professo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double mediating effect of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self-concept clar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self-consciousness and interpersonal anxiety in university students.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on 400 four-year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aged 19 to 29 years old enrolled in universities across the country. Data was analyzed using SPSS 25.0 and AMOS 21.0.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correlation analysis revealed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public self-consciousness,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self-concept clarity, and interpersonal anxiety.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self-consciousness and interpersonal anxiety was sequentially double-mediated by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self-concept clarity.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for interventions to alleviate interpersonal anxiety of college students were discussed.

Key words : *Public Self-Consciousness, Interpersonal Anxiety,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Self-Concept Clarity*